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시편 26:1-12)

시편 26편은 자연법상으로나 실정법상으로나 죄가 없는 사람이 악인의 취급을 받아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바른 생활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바른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의인의 길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3절).

이 말씀은 시인의 과거 삶이 성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무흠한 사람임을 주장할 사람은 땅 위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리 중에 행했다고 하는 시인은 자기가 진리의 길을 걷는 중에 적당히 눈가림만 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진리의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변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4절).

허망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망한 것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걷게 됩니다.

간사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곧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에

가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5절).

행악자는 오직 악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잡회록에서 자신은 하루에 세 번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술회합니다.

악한 자는 의지가 약해서 악에 쉽게 끌려갑니다. 시인은 그들의 행동을 미워하며 결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걷는데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1절).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진리의 길을 힘써 걸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흠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3절).

시인은 자기가 진리의 길을 걷은 것이 자기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진리 중에 행한 것에 대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산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거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 현재적 서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11절).

이 말씀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신앙고백입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평탄한 데는 안전한 곳,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시인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실 것으로 확신하고 천천만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탄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해보면 거기에 청원사항이 적어도 6 가지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3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청원 이면서 동시에 서원입니다. 이것은 기도이면서 신앙고백입니다. 땅 위에서 양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시며 악에서 구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생명도 부지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산업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현재적 서원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한 시인은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의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인간의 법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순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6절).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시인은 개인의 순결을 말하며 손을 씻고 제단에서

마음껏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이방의 빛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거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나 깨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는 사는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신자와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8절).

시인은 주께서 계신 집, 곧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적인 악인들처럼 곤고한 자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12절).

평탄한 데는 안전한 곳,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시인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실 것으로 확신하고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탄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곳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세계 평·화 음악회

4월19일(수) 밤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제38회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가 주관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4월20일(목)에 준비되고 있다.
그 전야제로 4월19일(수) 외국에서 초빙된 귀빈들과 국내거주 외국 대사들 그리고 각 계층 내국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를 4

월19일(수) 저녁에 우리교회당에서 갖는다.
저녁 5시30분 국내외의 귀빈 초청만찬이 만나홀에서 있는 후 7시부터 1부 헌신예배(설교: 이종운 목사)에 이어 에벤에셀 합창단의 연주로 음악회가 열린다.
에벤에셀 합창단은 국내음대 성악과 교수들로 구성된 최고수준의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부 2006 학부모 초청주일

4월2일(주) 오전10시 601호

고등부부장 김세재 장로에서 2006년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고등부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학업과 입시준비의 어려움 속에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게 될 이번 모임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는 반드시 참석하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주일 행사는 4월2일(주) 오전 10시 601호실에서 있다.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우리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자를 절약하며 나눠 쓰고 재활용하는 모범을 보이며 생활화하기 위해 본 교회 지하3층에 마련한 '나눔의 집'은 지금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 집 운영은 매주 월요일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참석하신 교역자를 대상으로, 수요일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물건을 한 점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역자와 이웃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다 보니 기증품이 모자라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의류를 비롯한 물건을 정리하실 때 입지 않는 의류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깨끗이 손질하여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나눔의 집에서 귀히 쓰이게 된다. 기증하는 물건은 교회 1층 사무국에 맡기시면 된다.

열린도서실 운영 중

102호실에서 평일 : 오전 10:00 ~ 오후 10:00, 주말 : 오후 1:00 ~ 4:30

성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한 열린도서실이 102호실에서 운영 중에 있다. 열린도서실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품위있게 좌석을 배치하고 각종 교양도서 및 신앙서적을 비치하였다. 도서실 개방은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이다.
또한 열린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성도들을 위

해 도서실 개방시간에 2명의 대학생이 시간제 봉사를 하며 정리와 수납 청소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교회는 회의나 모임 장소로 102호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해 열린도서실을 이용하는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전2020 후원자 명단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려는 비전2020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사역을 위해 군인 20만 명 이상에게 매년 세례를 베푸는 일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가 있다.
강진환(강일선) 권장철 김수영 김계중 김대호 김복녀 김사무엘 김영민(배병이) 김은애 김인순 김재진 김점숙 김중자 김태기 김형배 김혜경 나미용 노분환(장정화) 노송성(이영옥) 바울선

교회 박두영 박종인 박희서(김미자) 서귀용 손명근 손종근 안경옥 오영숙 이기범 이순배 임광호 정민호 최미아 최영순 최향봉 최홍열 하인선 한상준 홍광숙 홍재식 (다음주 계속)
비전2020후원자 봉투를 만들어 2층 새가족환영실 앞에 비치하였다. 찾아가시기 바란다.
군인 1명 수세기 경비 3천원을 1구좌로 후원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 모집

지원서는 사무국으로

오는 8월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게 되는 제6기 단기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원을 중심으로 선교와 교사강습, 여름성경학교, 찬양집회인도, 건축, 의료, 미용, 태권도, 무용 등 여러 부문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펼 25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세계선교대학 등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전도학교 18기 훈련생모집

개강 : 4월 9일(주) 오후 2시 802호

전도의 비전과 열정과 능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전도학교가 열린다. 성도들의 많은참여 바란다.
18기 전도학교 일정은 주일반 4월 9일 ~ 6월 25일 (매 주일 오후 2시 / 802호), 화요일반 : 4월 11일 ~ 7월 9일(매 화요일 오전 10시 / 603호)이다.

주일 주차안내

성도들의 증가와 더불어 매주일 교회 지하주차장이 비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성도들은 가급적 차량은 집에 주차하고 대중교통 혹은 걸어서 교회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 성도들은 지하 1,2층 주차장은 새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하루 종일 주차해야 하는 차량은 지하3층에 주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인근에 유료 및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차관리 위원들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다.

금주의 성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11)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Psalms 42:11 [NIV])

전국일꾼양성-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윤영숙 집사(14교구)

저희 가정은 이제까지 군 교회를 15년 섬기다가 일원동에 정착하게 되어 그동안 극동방송을 통해 매주 복음의 비밀을 담담히 들려주시는 이종윤 목사님 말씀에 매료되어 망설임 없이 서울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하였습니다.

자칫 등록 후 서막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예배 후 새가족실로 올라가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실 분들이 계시기에 8주라는 시간이 조금도 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준비찬양을 하는 중에도 마음이 참으로 기뻐고,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온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기가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배울 때면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만큼 행했으며 노력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나를 반문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등록한 다음 주부터 다락방 예배도 같이 드리며 다락방 안에서도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 중보하며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 저의 좁은 생각으로 큰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의 염려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으라면 첫째, 풍성한 말씀의 교회, 둘째,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셋째,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리며 새가족반 수료 후 지금은 찬양대 양성반에 등록해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배우고 훈련받아서 서울교회의 작은 모퉁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동아시아 중보기도팀

골방선교사를 찾습니다

김수정 집사(동아시아 중보기도팀장)

"그 분의 신실함 가운데서 성실함과 솔직함과 부지런함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에 형제요 자매이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기도를 부탁 하신 선교사님을 아시는지요?

"회사", "생각해주세요" 이런 단어가 낯설지 않으신지요? "기도해주세요" 를 "생각해주세요" 라고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선교지에서 날아 온 편지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어느 선교지인들 선교사님들에 안전이 보장된 곳은 없습니다.언제 생명을 내놔야 할지 모르는 선교에 현장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역지를 떠나시면 주한나선교사님과 자녀들 또, 강야곡선교사님에 안전은 비로서 집에 오셔서만이 서로가 무사 했음을 알 수 있으시고 이미 블랙리스트요 주의 인물에 올라가 계셔서 항상 두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두 분을 위하여 위험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눈을 가려 주시고 철쭉같은 어둠에서는 빛으로 인도 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실 골방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문화와 언어와 기후가 다른 선교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에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가족의 안전을 맡기고 선교에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의 불씨들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기도에도 작은 불씨들이 선교에 현장에서 큰 불이 되어 타오르게 하십시오.

선교는 고난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답니다. 100년 전에 이땅에 발을 내딛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듯이 선교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점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골방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강야곡, 주한나 선교사님 중보기도모임 시간은 매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3층 예배다식 매 주일 3부 예배 후 8층 만나홀 새신자석 매 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1시~1시30분 *수요일 모임은 29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민에게 전도-70인 전도대

믿음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박정임 집사(7교구)



부활은 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 시금 새롭게 오는 것처럼 부활주일일을 반 정도 남겨놓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도 다시금 새롭게 부활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꿈꾸면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 걷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뛰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고대하며 나 자신이 세상에 영향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또한 전도대원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모든 일을 탐욕으로 하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꾸는 70인 전도대원들...

목사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과 중보기도팀의 기도 용사들의 씩 없는 기도와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도곡 렉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맡은 11개 동을 임마누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1차 전도 때 빠뜨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반갑게도 한 가정에서 제 포레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시기에 아주 공손히 인사하고 '입주 축하와 교회 소식 전할 겸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며 신앙유무를 물었더니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다고 하시기에 저에게 잠깐 시간 내어 주시기를 요청하여 우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책자를 읽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양육 받고 영혼이 구원되어 함께 천국시민 되시길 원하는 것이며 저에 대한 간증도 하고 손을 붙들고 정말로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저의 태도가 진실해보였는지 이들과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도록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 지라도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전도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에바다부 농인전도

수화로도 전도를 할 수 있다

김미향 집사(에바다부 교사)

올해로 에바다부가 개교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제가 전도 학교에 입학하여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임규현목사님과 70인전도대에 참석하여 농아인 축호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손짓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결심자가 생기면서 농아인도 축호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농아인 수는 대략 35만명을 추산하며 이 가운데 10%인 3만5천명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교단 농아인교회 역사는 올해로 6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아직은 농아인 복음화가 불모지나 다름없지만 우리 서울교회 에바다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농아인은 만나서 얼굴을 보고 전도를 해야 됨으로

수화를 배운 청인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농인과 청인이 1조가 되어서 축호전도를 실시해야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리도 듣고 주위환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도 전임 통역사 선생님이 필요하며 어느 부서든지 한 분의 수화통역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수화통역봉사자가 항상 교회에 상주해 있으면서 농아인의 통역 요청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축호전도 보다 더 많은 전도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18기 전도학교에 농아인 집사님이 등록하여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대에 투입될 것이며 계속 바턴터치로 1사람씩 전도학교에 입학할 것을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전도학교 개교이후 최초농아인 수료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부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에바다부는 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은 농아인 스스로 에바다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많이 개편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교회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화에 관심 있는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목) 군선교신학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경현 목사(군선교사)는 지난 3월7일 제6군단장(중장 송기석)으로부터 부대발전과 장병들의 정신교육, 위문 및 종교활동 지원으로 장병신앙 전력화에 크게 기여하여 감사장을 받았다.
-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는 한국농아인 선교 60주년 감사예배 및 전도대회 준비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종운 목사는 6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각각 추대된다.
- 신동기 권사(12교구)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무, 최소희 권사(5교구)서기로 피선되었다.
- 이사: 김형상 집사, 최금숙 집사(11교구) 강남구 도곡동 택슬@T. 529-3742
- 입상: 청년부 이송선 양(이영조 집사, 이영자 권사 장녀) The 2006 National Organ Playing Competition 2위 입상
- 승진: 청년부 오명걸 군(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차남) (주)영원무역 과장 12교구 이일영 집사(이재운 집사, 이용자 권사) (주)삼성전자 과장
- 개업: 김준희 성도(2교구) 경희 P.P.T 스포츠 아카데미 (대치4동)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 전도회(3월26일) 에스더 전도회(4월2일)
- 금주의 식사: 임옥균 집사·박영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김상렬집사·노정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천국일꾼양성-고등부 학부모 초청간담회

고등부 학부모님들 초청합니다

김세재 장로(고등부 부장)



4월 2일(주일) 고등부에서 "2006 학부모 초청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대부분 초청장을 받으셨으리라 믿지만, 현재 고등부에 자녀들을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본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는 고등부 학생 학부모님들도 환영합니다.

3월 중 가정 전화심방으로부터 준비된 이 행사는 먼저 자녀들을 고등부에 보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표와 고등부의 교육목표와 계획을 설명한 뒤, 담당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정과 교회교육의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여 자녀들이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학교와 학원에 치우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참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교회학교 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본 행사의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감한 청소년들의 상처와 고민거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치유함으로써 성숙한 신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것이 고등부 교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힘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는 이번 초청주일 행사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조그마한 "희망의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3. 복한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 위하여
4. 사순절 절기에 절제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5.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오시는 길

